



꿀집이새의 복수



Zulu folktales ✎

Wiehan de Jager 🗣️

Michelle Kim 📄

Korean 🗣️

Level 4 📖

Storybooks Canada

storybookscanada.ca

꿀집이새의 복수

Written by: Zulu folktales

Illustrated by: Wiehan de Jager

Translated by: Michelle Kim

This story originates from the African Storybook (africanstorybook.org) and is brought to you by Storybooks Canada in an effort to provide children's stories in Canada's many languages.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International License.](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이 이야기는 네게데, 꿀잡이새, 그리고 진질레 라는 욕심많은 젊은 사람 이야기 입니다. 진질레는 사냥을 하러 밖에 나갔어요. 갑자기 그는 네게데의 소리를 들었어요. 진질레는 꿀 생각에 입에 침이 고였어요. 그는 그의 머리 위에 나뭇 가지에 새를 볼 때까지 멈추고 주의 깊게 들었어요. “치탁-치탁-치탁,” 작은 새가 그 다음 나무에 가며 소리 냈어요. 그후로 그 새는 “치탁-치탁-치탁”하며 진질레가 따라오고 있는지 수시로 멈추며 확인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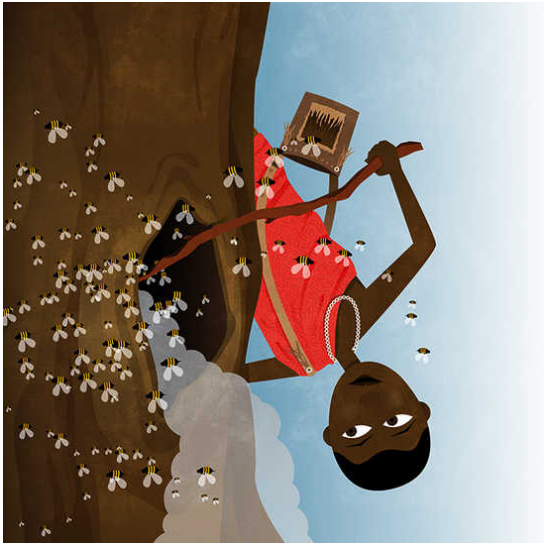
감정분 후, 그들은 거대한 야생 무화과 나무에 도달했
습니다. 네게는 미친 듯이 가지 위를 뛰어 다녔어요.
그는 그 한 가지 위에 정착하고, 그의 머리를 숙여 진
례에게 묻혔어요,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오래 전부터는 나무 아래에서 쉼터였지만, 네게
를 수 없었지만, 네게를 믿었어요."





진질레는 나무 아래에서 그의 사냥 창을 내려 놓고, 마른 나뭇 가지를 모아 작은 불을 만들었어요. 불에 잘 타고 있을 때, 그는 긴 마른 막대기를 불꽃 중심에 넣었어요. 그 나무는 탈때 특히 연기를 많이 내기로 알려져 있었어요. 진질레는 식은 나무를 입에 물고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곧 바벨 문밖의 웅웅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나무 속 파인곳에서 들려오다가 나왔다가 없어졌어요. 진짚레가 그들의 벌집 근처로 다가갔을 때 그는 인에 롭고 있던 나뭇가지를 벌집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문밖들은 문노에 차서 밖으로 돌진했어요. 그들은 진짚레에게 고물스러공 독침을 쏘고 튀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나뭇가지에 베어있는 연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진짚레의 아이들이 네게 데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작은 새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밖을 수화 할 때마다, 벌 문밖의 아리를 꼭 문밖이 새들에게 나눠주곤 합니다!





꿀벌들이 밖으로 다 나왔을 때, 진질레는 등지에 자신의 손을 밀어 넣었어요. 그는 한 움큼 벌꿀 덩어리를 집었어요. 그 꿀 덩어리는 진한 꿀이 똑똑 떨어졌어요. 그는 그가 어깨에 메고 다니는 자신의 주머니에 꿀 덩어리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는 나무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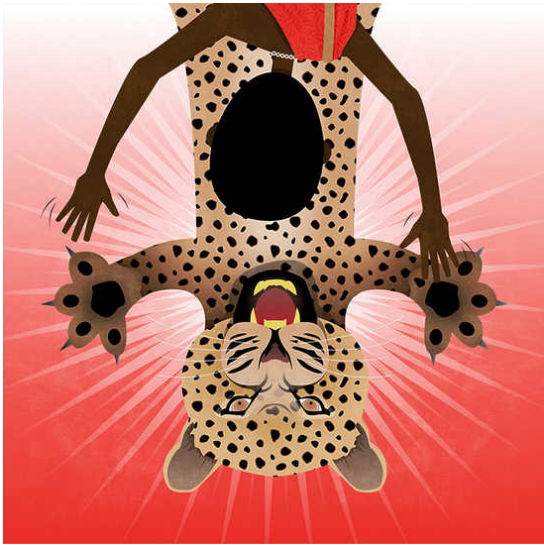


레오파드가 진질레를 공격하기 전에, 진질레는 나무 아래로 돌진했어요. 그가 너무 서둘러서 그의 나뭇가지를 놓치고, 무거운 쿵 소리와 함께 떨어질 때, 그의 발목이 뒤틀렸어요. 그는 빨리 다리를 절며 뛰어 갔어요. 다행히도, 표범은 그를 쫓아가기에는 아직 너무 졸렸어요. 네게데, 그 벌꿀 길잡이 새는 그의 복수를 했고 진질레는 그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네게네는 진취레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을 열심히 지켜 보았어요. 그는 자신이 네취레에게 벌룬 킨장이 되었을 때 꿈에 갑자기의 뜻으로 벌룬 조각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게네는 가치 가치를 뭉겨가며 버락으로 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드디어 진취레는 나무에서 거의 내려 왔어요. 네게네는 진취레 근처 버락 위에 자리 잡고 그의 보상을 기다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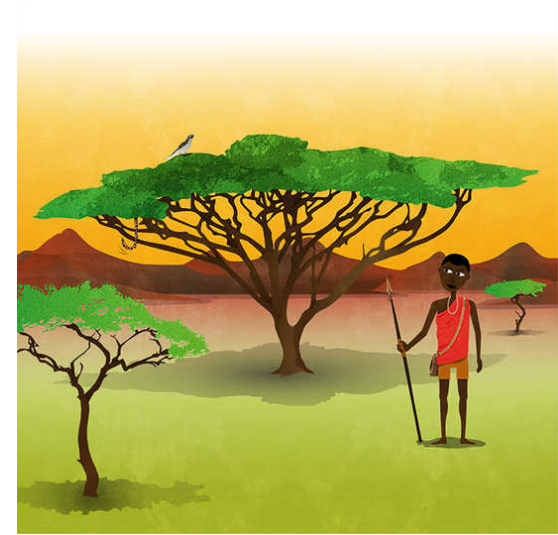


진취레는 보물의 웅덩이 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음 이상을 근해하며 나무를 뒹굴었어요. "어머도 벌룬은 나무 같은 곳에 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는 또 다른 가치를 풀 뒹굴었어요. 하지만 벌룬 대신, 그는 표범의 털론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표범은 무례하게 그녀의 잔를 뒹굴면서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녀는 그녀의 곡를 듣게 되고 그녀의 매우 크고 매우 튼튼한 팔이 뒹굴 때 그녀를 뒹굴었어요.





그러나, 진질레는 불을 끄고 자신의 창을 집어 새를 무시하고 집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네게데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진질레! 진질레!” 진질레가 잠시 멈춰 그 작은 새를 응시하고 큰 소리로 웃었어요. “너도 꿀을 원하니 친구야? 하! 하지만 내가 모든일을 하고 벌침도 내가 다 맞았어. 왜 내가 너랑 이 아름다운 꿀을 공유해야 하지?” 그리고 그는 걸어갔어요. 네게데는 분노했어요! 그를 이렇게 대하면 안되는거였어요! 네게데는 복수를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몇 주 후 어느날 진질레는 다시 네게데의 꿀 위치 알림을 들었어요. 그는 맛있는 꿀을 기억하고, 열심히 다시 한 번 새를 따라갔어요. 네게데는 숲의 가장자리를 따라 진질레를 선도 한 후, 그는 큰 우산 가시에서 멈추고 휴식을 취했어요. “아,” 진질레는 생각했어요. “벌집이 이 나무에 있겠구나.” 그는 신속하게 작은 불을 만들어 그의 입에 탄 나뭇가지를 물고 나무를 타기 시작했어요. 네게데는 앉아서 보고있었죠.